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pISSN 2287-3368 / eISSN 2287-3376

REVIEW ARTICL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37, No.3, pp.159-171, 2020
https://doi.org/10.14406/acu.2020.021

한의학증례보고에서 가치 있는 증례는 무엇일까?

한가진[1,2] · 김송이[3]

[1]진리서치, [2]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실, [3]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What Cases Are Worth Publishing in the Korean Medical Case Report?

Gajin Han[1,2], Song-Yi Kim[3]

[1]JINRESEARCH,
[2]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3]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covered in the case stud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nd furthermor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lead the discussion on 'what cases are worth reporting' in future case reports. **Methods :** Case reports on TKM were searched using the OASIS. The searched research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 of case, including information on disease/symptoms and intervention. **Results :** A total of 940 researches were searched.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 of case study was the report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Case reports, which were only two cases in the 1970s,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and in particular, 314 cases within the last five years accounted for about 33% of the total literature. As for the number of studies by disease, the cases dealing with musculoskeletal diseases such as spine, shoulder and knee joint disorders were the most prevalent. Besides, there were many case reports related to cardiovascular, gynecological, cancer, psychiatric, and dermatological diseases. In a total of 51.9% of the included case report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Korean medical treatments such as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was used at once, and western treatment was used with Korean medical treatment in 28.2% of the studies. The types of Korean medical treatments were varied, such as acupuncture, moxibustion, pharmacopuncture, electroacupuncture, Chuna, acupotomy, herbal medicine, external preparation, and psychotherapy. The main purpose of the publication of the included case reports was analyzed as a report of TKM treatment for rare diseases, or the application of TKM treatment to diseases or symptoms that are "uncommon in TKM treatment" even if it is not a rare disease. **Conclusions :** Case reports have the strength of generating new scientific hypotheses by detecting the basic needs and novelty of medicine. The current case studies of TKM do not seem to be sufficient to highlight these strength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cases are reported as cases of patients worth publishing,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ase studies of TKM by utilizing diagnostic tools and science technology.

Key words : case reports, Korean medicine, review

Received August 19, 2020, Revised September 21, 2020, Accepted September 22, 2020

Corresponding author: **Song-Yi Kim**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 13120, Korea
Tel: +82-31-750-8826, Fax: +82-31-750-8854, E-mail: songyi@gacho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0, SOCIETY FOR MERIDIAN AND ACUPOINT

서 론

증례보고(case report)는 대조군이 없이 주로 후향적으로 수행되는 관찰연구이다[1,2]. 증례보고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연구에서 누락되거나 감지되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을 관찰하여 이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례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자 치료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3]. 비록 증례보고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의 근거의 단계(evidence hierarchy) 아래쪽에 위치하여 인과관계가 낮고 약한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지만, 임상 근거의 최전방에서 의사와 환자의 실제 진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다[4,5]. 이는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와는 차별된 것으로, RCT가 실험적으로 세팅된 환경에서 확증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반면, 증례보고는 과학적 참신함과 영감을 제공한다. 또한 RCT가 부족한 연구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 유용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6].

새로운 질병의 자연사나 예후, 치료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널리 보급하는 것 또한 증례보고가 제공 가능한 가치이다[6].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COVID-19에 대하여 매일 전 세계적 동향, 질병의 특징과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상황 보고서(situation reports)를 발표하고 있으며[7], 각 저널 및 학술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빠른 출판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새로운 감염병의 특징과 예후, 환자의 증례보고를 발빠르게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규모 실험적 임상연구를 위한 배경과 통찰은 이렇게 출판된 다양한 형태의 증례보고와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계획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새로운 질병의 인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증례보고는 현 시점에도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 연구의 경우 생물학적 기전, 치료중재의 효능, 안전성, 임상현장에서의 유효성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 활용이 가능해지는 일반적인 의학연구/개발 프로세스와 달리 이미 널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기존 의학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외에 임상 실제에 대한 관찰을 통한 치료의 맥락이나 패러다임, 철학적 이해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2]. 따라서 증례연구와 같이 현상을 기술하고, 가설을 위한 배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은 한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와 같은 증례보고의 기술과는 다소 다르지만,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안(醫案)'을 통해 증례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왔다. 의안은 의가들이 질병을 진찰, 치료하는 과정을 글로 적어 남긴 것으로, 본인의 임상 경험뿐 아니라 자신의 학술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후학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학술적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8]. 이와 관련된 국내 의안 연구로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한의학적 대처 방법을 의안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연구를 비롯하여[9], 의안을 한의학 교육에 적용하여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의 모듈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있다[10]. 현재에는 한의학 증례보고가 의안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임상의들도 증례보고 형태로 자신의 치료 경험이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증례보고는 과학적 연구방법의 형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한 보고를 배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왔고[11], 이는 Case Report Guideline (CARE)과 같은 보고지침의 제안과 확산으로 이어졌다[12]. 한의학 증례보고에서도 보고의 질(reporting quality)을 높이고, 한의학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증례보고 연구의 보고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1,13-16]. 그러나 보고의 질이 연구 그 자체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례보고에서도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하느냐 만큼이나 연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증례보고의 작성과 출판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가이드라인들에서 증례보고를 잘 쓰기 위한 시작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보고하려는 증례가 과연 출판할 만큼 참신하고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3,6,17-19]. 그러나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루는 주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어떤 증례가 '출판할 만큼 참신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 또한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저널에 출판된 증례보고들이 어떤 주제(증례)를 다루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증례의 특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의 증례보고에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문헌 연구 검색 및 분석 대상 선정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database인 OASIS 전통의학 정보포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kiom.re.kr)의 '기본검색' 기능을 통해 '증례'를 검색어로 하여 2020년 7월 25일 검색을 시행하였다. 문헌검색기간 및 검색 범위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언어제한은 두지 않았다. 해당 검색엔진에서는 2020년 7월 15일 기준으로 55종 한의학술지(1963~2020)의 한의학술논문 총 31,976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검색된 문헌 중 증례보고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1) 한의학 관련 연구가 아닌 경우; 2) 증례보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구; 3) 출판시기가 오래되어 원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정된 문헌 분류 및 분석

1) 질환별, 증재별 분류 및 분석: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검색된 논문의 제목, 초록 및 원문을 통해 증례가 다루고 있는 질환 및 치료중재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질환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https://www.kmcric.com)의 근거중심한의약 DB의 질환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간장조혈내과, 순환신경내과, 위장소화내과, 폐장호흡내과, 신장내분비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종양내과로 분류하였다.

치료중재에 따른 분석에서 중재는 크게 1) 2개 이상의 한의치료중재를 사용한 경우; 2) 한의치료중재와 양방치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 3) 침만 사용한 경우; 4) 한약만 사용한 경우; 5) 침, 한약 이외의 단독 한의치료중재만 활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양방치료중재는 타겟 질환과 관련이 없더라도 양약 등을 복용하였다고 기술한 경우는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증례보고에서 양약 등과 같은 양방치료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목적 및 복용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질병의 특성 상 양방치료중재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술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나 '병용투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여부를 놓고 이를 구분하였다.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뤄지고 있는 치료중재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침 치료와 관련된 경우, 치료이론[사암침법, 동씨침법, 팔체질침법, 분구침법(이침, 두침, 수지침 등 포함)]과 도구의 특성[전침, 화침, 온침, 매선, 피부침(피내침, 미세침 포함), 레이저침(레이저치료, 광선치료 포함), 뜸, 부항, 사혈/자락요법, 약침, 침도요법]을 기반으로 각 증례보고에서 활용된 치료중재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한약 치료의 경우, 처방을 위한 사용된 이론(사상의학, 상한론, 형상의학, 기타 새로 개발된 한약기반치료)을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나누었고, 기타 치료로 추나(근막이완요법, 두개천골요법, 도수교정, 근에너지 기법 등 포함), 기공, 한방외용제와 외치법(거머리요법, 훈증요법, 좌욕, 여드름 압출법, 관장법, 테이핑, 스파치료, 찜질, 점안액 등 포함), 보조기 사용, 음양균형장치 사용, 한방정신요법(행동수정, 자율훈련법, 뉴로피드백, 이완요법, 행동요법 등 포함)으로 나누어 그 빈도를 추출하였다. 상기 세부항목들은 미리 일부 증례에 대한 내용을 무작위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치료중재 분석은 각각의 치료중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되, 2000년대 이후의 증례보고 논문이 급격하게 많아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는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한의학 증례연구에서의 환자 사례의 특징에 대한 정성적 분석

한의학 증례연구에서 다룬 환자 사례의 특징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증례의 주제별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사례의 특징 요소들을 뽑아내고 이에 대해 해당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자 사례의 주제 선정은 미리 수행한 질환별, 치료중재별 세부분석 요소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한의학 임상 상황을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보고된 증례보고에서의 좋은 증례에 대한 기준들[3,6,17-19]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질환의 특징: 질환과 관련한 주제로는 질환 자체의 병인 병기 측면(질병 간, 증상 간의 관련성 포함), 질환을 진단하는 측면, 질환 자체의 희귀성, 질병에 의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 질병에서의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해당되는 증례를 확인하였다.

(2) 치료중재의 특징: 치료중재와 관련된 주제로는 치료로 인한 유의미한 결과의 보고, 치료나 치료과정 중의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 보고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증례를 확인하였다.

결 과

1. 문헌 검색 결과

미리 설정된 검색전략에 의해 총 981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들 중 중복문헌 4건, 증례보고가 아닌 문헌 29건, 한의학과 관련이 없는 문헌 6건, 원문미확보 1건을 제외하여 940개의 문헌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한의 증례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형태는 중재의 효과에 대한 보고였으며, 그 외 진단 혹은 검사법에 대한 보고 3편,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 12편, 예상치 못한 증상의 발현에 대한 보고 1편이 있었다.

2. 문헌 분석

1) 연도별 문헌 편수: 연구 출판 연도에 따른 논문 편수는 1970년대 1편, 1980년대 2편, 1990년대 14편, 2000년대 346편, 2010년대 555편이었으며, 2020년에 현재까지 출판된 논문은 22편이었다. 1970년대 1편에 불과했던 증례보고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문헌이 314편으로 전체 문헌의 약 33%를 차지하였다(Fig. 1).

2) 학회지별 문헌 편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72편,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80편, 대한침구학회지56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53편, 한방척추관절학회지 50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49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49편,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2편, 대한한의학회지 22편 등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질환별 문헌편수 및 세부내용: 질환별 문헌수는 침구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대한 문헌이 196편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다룬 증례가 가장 많았다. 재활의학과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만에 대한 문헌을 배정하였으며 총 168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신경내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관한 문헌이 114편, 부인과질환 68편, 종양에 대한 문헌 60편, 정신과 질환 54편, 피부과 53편, 위장소화내과 45편, 소아과 42편 등이었다. 다양한 증상의 여러 환자를 다룬 논문 1편은 기타로 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척추, 견관절, 슬관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기능적 뇌척주요법(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으로 불리는 음양균형장치를 통하여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치료된 다양한 질환 증례들이 턱관절균형의학회지에 출판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재활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 비만에 대한 증례보고는 28편이었는데 대부분 치료 중재의 효과를 다룬 내용이었으며, 그 중 1편은 비만 환자의 절식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황달에 대한 증례 보고였다.

간장조혈내과로 분류한 문헌에서 다룬 질환은 만성 간염, Wilson씨 병,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 등이 있었다. 그 외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다룬 문헌이 6편 있었는데, 약인성 간손상 환자가 한약을 복용한 경우와 장기간 한약을 복용한 환자 등에서 간기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반면, 산삼약침 투여로 인해 약인성 간손상이 발생한 증례에 대한 보고가 1편 있었다. 또한 환자 임의로 섭취한 한약재로 인한 중독사례에 대한 보고도 2편 존재하였다.

한편, 순환신경내과 관련 문헌은 주로 뇌경색과 뇌출혈에 관한 증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소아에 대한 증례는 3편, 임산부에 대한 증례도 1편 존재하였다. 그 외에는 파킨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다룬 증례보고들이 있었다. 위장소화내과 관련 증례는 기능성 소화불량, 위식도역류질환, 궤양성 대장염, 위 절제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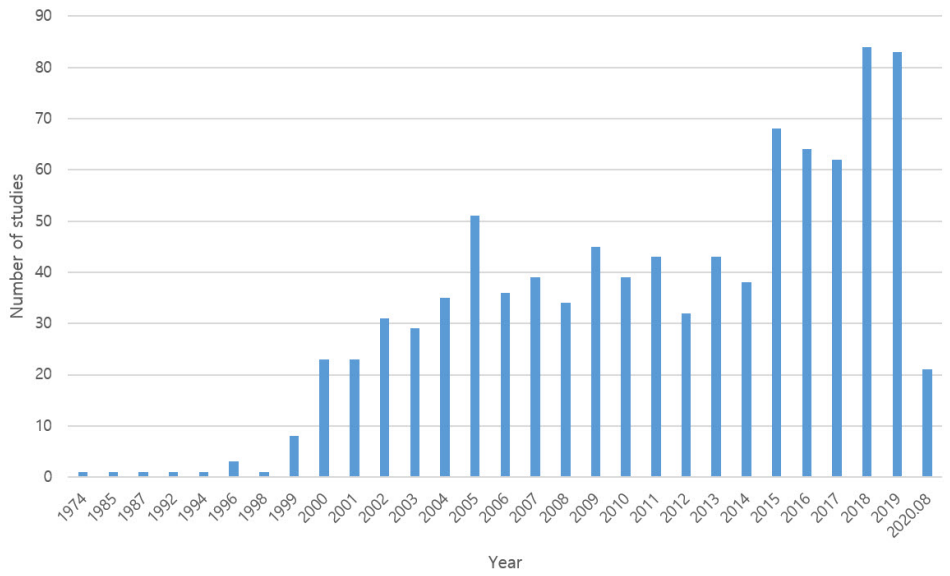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by year.

Table 1. The journals in which case report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number of corresponding documents

Name of Journal	Number of case reports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172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80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56
The Journal of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53
Journal of Oriental Spine and Joint Society	50
The journal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49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49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42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36
University Journal	34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34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32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9
Journal of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28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4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2
Journal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18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17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oncology	15
The Korean journal of maridian & acupoint	14
Journal of TMJ Balancing Medicine	14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10
Journal of the Society of Stroke on Korean Medicine	10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n Hyungsang Medcine	8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8
Journal of Oriental Sports Medicine	7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4
The journal of oriental chronic diseases	7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3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Ki-Gong academy	3
The journal of association of spinal manipulation & diagnostic method	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
Journal of Hyehwa Medicine	2
The journal of SOMUN oriental medical society	1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ncology	1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1
Jouranl of Bokchi medicine	1
Dongeui Haneui Yeon	1

증후군, 마비성 장폐색, 구강작열감 증후군, 흑모설, 설염, 딸국질 등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치료중재의 효과를 보고한 논문이었으며, 특이적인 증례는 각기 다른 유문-십이지장의 기질적 병변을 나타내는 3명의 환자 대한 장음을 측정한 보고가 있었다.

폐장호흡내과 관련 증례는 비염, 다한증, 천식, 폐기종, 만성기침, 부비동염 등의 질환을 다루었다. 특히 다한증의 경우 7편의 증례에서 다양한 처방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신장내분비내과 관련 증례의 경우 당뇨, 갑상선질환, 신우신염, 방광염, 쿠싱증후군, 다낭성신질환 등의 질환을 다루었다. 대부분 효과에 대한 보고였으나, 소청룡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증례도 있었다.

부인과 관련 증례는 난임, 갱년기 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불순, 만성골반염, 자궁출혈, 난소낭종, 요실금 등이 있었으며, 특이한 증례로는 한의약중재를 통해 출산과정에 도움을 준 보고들이 3편 있었다.

소아과 관련 증례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질환을 다루었는데, 성장, 지루성 피부염, 야경, 야제에 대한 증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의 소아임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이었다. 즉, 아스퍼거 증후군, 헌터증후군, WPW 증후군, 신체화장애,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증, 마비사시, Krabbe병 등에 대한 보고

Table 2. The disease dealed in case reports and the number of corresponding documents

Disease	Number
Department of Hepatology	29
Department of Cardiology	114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44
Department of Pulmonology	21
Department of Nephrology	37
Department of Acupuncture of Moxibustion	196
Department of Gynecology	68
Department of Pediatrics	4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 Otorhinolaryngology	30
Department of Dermatology	54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169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1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54
Department of Oncology	60
Miscellaneous	1

였다.

안이비인후과 관련 증례에서는 삼차신경통, 이명, 돌발성 난청, 복시, 메니에르 증후군, 보그트-고야나기-하라다병 등을 다루었으며, 피부과 관련 증례에서는 여드름,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성 자반증, 습진,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사마귀, 탈모 등의 다빈도 질환 외에도 Henoch-Schonlein자반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질환에 대한 증례보고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도 안면주름, 피부미용, 성형수술 후 부종에 대한 증례도 보고되었다.

신경정신과 관련 증례는 공황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 틱장애, 뚜렛장애, 화병, 진전, 기억상실, 치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섬망 등으로 다양했다.

사상체질과와 관련된 증례에서 다룬 질환은 중풍 후유증, 중풍 환자에게 병발된 불면/폐렴, 진전, 베체트병, 의인성 부신기능저하증, 부종, 당뇨, 심방세동 등이었다. 이 외에도 소양인 환자에게 태음인 처방을 사용해 오치한 경우에 대해 보고한 증례도 있었다.

종양에 대한 증례는 58건으로 2000년 이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암종은 폐암, 위암, 유방암 등의 유병률이 높은 암 이외에도 하악 선양낭성암, 흑색종, 갈색세포종, 교모세포종 등의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은 암에 대한 증례도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표준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치료 증례이며, 그 외 종양퇴축에 대한 증례들도 보고되었다.

4) 중재 별 문헌편수 및 세부 내용

치료중재에 따른 분석은 치료중재에 대한 분류가 가능한 9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1.9% (n=481)의 증례보고에서는 침, 한약 등 2개 이상의 한의치료를 한꺼번에 활용한 복합 한의치료중재를 사용하였고, 28.2% (n=261)는 양방치료중재를 한의치료중재와 함께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만 사용한 경우는 10.7% (n=99)였고, 침만 사용한 경우는 5.4% (n=50)로 이는 수기침만 사용하거나 약침만 사용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 결과이다. 그 밖에 특정 치료중재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3.9% (n=36)로, 그 중에서는 침도요법이 가장 많았고(n=9), 뜸, 추나, 매선 등이 있었다.

(1) 증례보고에서 사용된 치료중재의 연도별 변화

① 침 치료와 관련된 치료중재의 경우 치료이론과 도구의 특성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치료중재의 사용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2). 뜸(n=238), 약침(n=214), 부항(n=162), 전침(n=120)은 증례보고에서 자주 활용된 치료중재였으며, 상대적으로 레이저침(n=21), 매선(n=13), 사혈요법(n=11), 온침(n=8), 피부침(n=7), 화침(n=6)은 덜 사용되었다. 막대그래프로 표기된 전체 증례보고 수의 증가 추세선에 기반해서 볼 때 약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더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침요법은 2000년대 후반부터 증례보고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보고가 지속되고 있었다. 치료이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사암침법은 단독, 혹은 다른 침법과 동시에 활용이 되었는데(n=91), 2001～2010년 구간에는 많이 보고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동씨침법이나 체질침, 이침/두침과 같은 분구침법도 2000년대가 가장 많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 다양한 침법을 임상에 활용하고 이를 증례보고로 발표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침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작침법(Motion Style Treatment, MST: 자침 후 환자로 하여금 자침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법), 태극침법, 황구침법, 자석침, 정안침, 안면미소침, 레인보우 요법(1992년 일본에서 알려진 색채요법 중 하나로 경혈자극이 포함됨) 등이 있었다.

② 한약 치료의 경우, 처방을 위한 사용된 이론(사상의학, 상한론, 형상의학, 기타 새로 개발된 한약기반치료)을 기반으로 세부분석을 진행하였다(Fig. 3).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폭발적인 증가가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한론 기반의 처방을 활용한 것은 201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형상의학과 관련된 증례는 증감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밖에 한약재 기반의 기능성 음료나 천연물 신약 주사, 균주배양액 등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증례연구가 일부 보고되었다.

③ 침, 한약을 제외한 치료중재에서는 추나 증례연구의 급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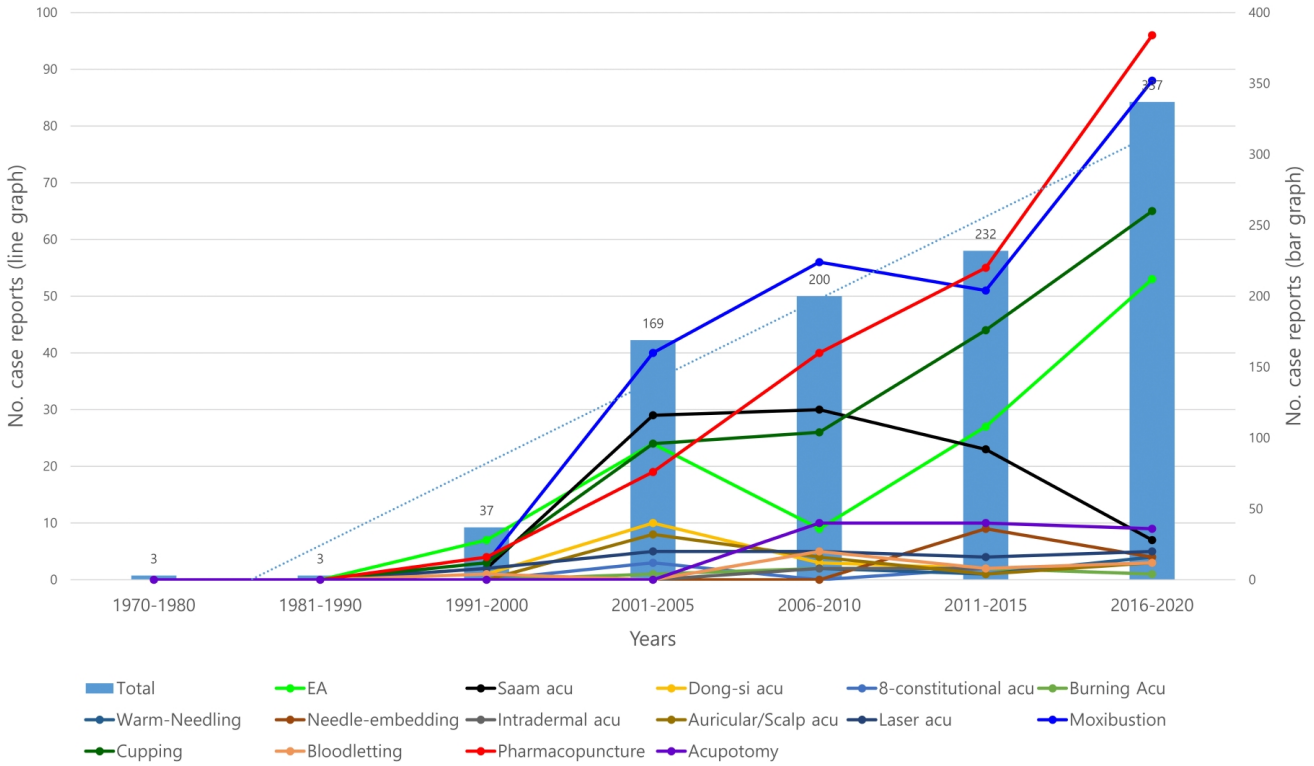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studies in which acupuncture-related interventions were used.
This graph represents the number of case reports using acupuncture-related intervention. The bar graph (right y-axis) shows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published in each period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according to treatment interventions used (lines, left y-axis). acu : acupuncture, EA : electroacupuncture, No. : number.

증가가 특징적이었다(Fig. 4). 추나(n=88)의 경우 단독으로 활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한의복합치료중재의 하나로서 일상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한방 외용제와 외치법(n=52), 한방정신요법(n=29), 음양균형장치 사용(n=15), 기공(n=10), 보조기 사용(n=7)은 시대에 따라 증감세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증례보고 증가추세선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2) 단독 사용된 치료중재 중 특이 사례에 대한 분석: 침만을 사용한 증례보고의 경우 대부분 침 단독 중재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 연구였다. 그 외에 한약을 거부하여 침 치료만을 한 알콜성 간질환 환자에 대한 사례[20], Interferone과 Ribavirin 병용요법을 사용한 만성 C형간염 환자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이를 침 치료로만 변화시킨 사례[21], 태연 및 외관 자침, 팔사혈 자락 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이상감각 및 출혈 증상을 침(음릉천, 혈해)으로 소실시킨 사례[22] 등이 있었다.

한편, 사암침법을 형상의학적 관점으로 운용하거나[23], 사상의학적 관점으로 운용한 증례[24] 는 한의학의 서로 다른 이론을 결합한 독특한 증례라 할 수 있다. 섬수약침을 국소 마취로 사용하여 표피낭종을 외과적으로 절제, 봉합한 증례는 현재 한의사들의 드문 임상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증례에서는 한의학 외과술 발전의 계기로 그 의의를 기술하였다[25].

5) 한의학 증례연구에서의 환자 사례의 특징에 대한 정성적 분석

(1) 질환의 특징: 증례보고 대상이 된 질환들은 희귀성이 있는 질환이거나, 질병 자체가 드물지는 않지만 그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출판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임상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증례보고 질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외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단순 통증이나 기능 이상 외에도 골절이나 근골격계 특이질환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근골격계 특이질환으로는 샤르코 마르투스 병 환자의 족관절 통증에 대해 족관절 추나요법을 적용하여 증상의 개선을 보고한 증례가 있었다[26]. 또한 턱관절의 불균형을 치료하여 다양한 질환을 개선시킨 증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절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늑간골절, 경추골절, 다발성골절에 대해 한의복합치료를 시행해 통증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호전시킨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발목골절 수술 후,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원위 요골 골절 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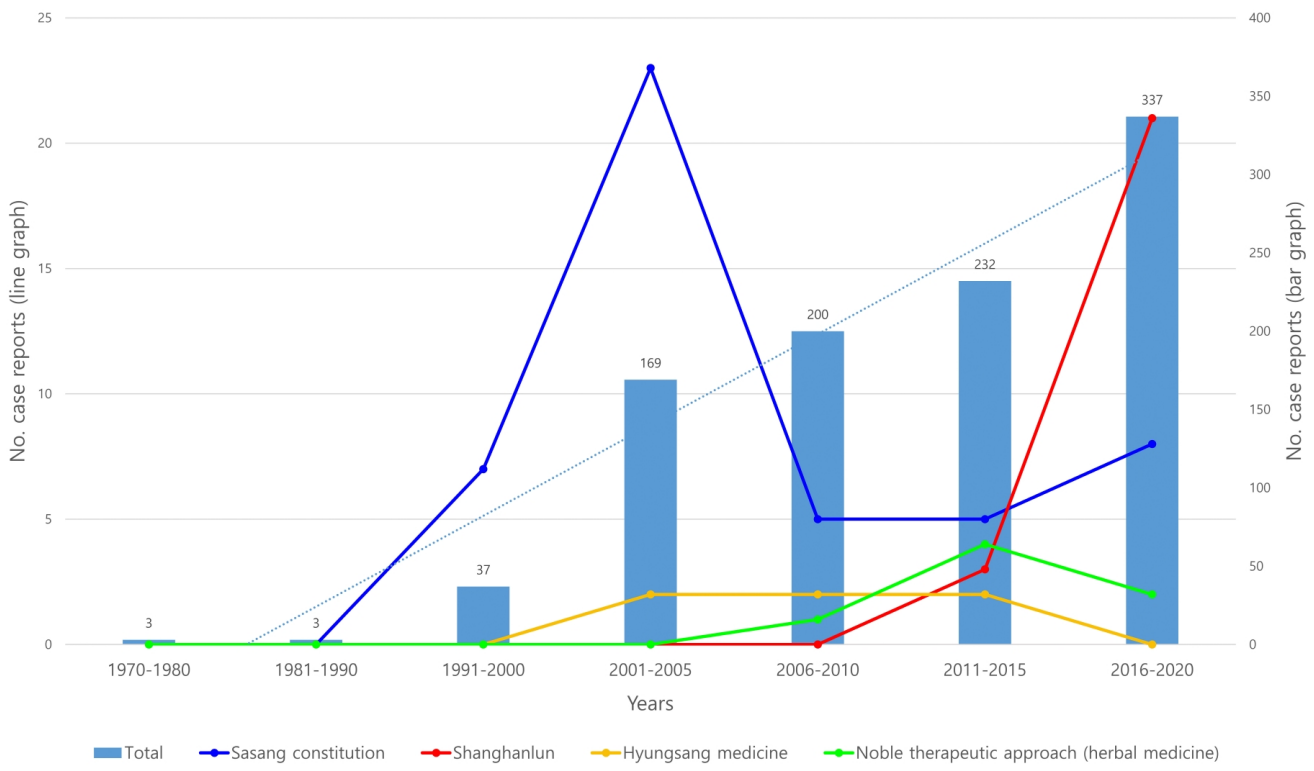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studies by theory used in the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The bar graph (right y-axis) refers to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using herbal medicine,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by theory used in the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한방재활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적용한 증례들이 있었다. 비만에 대한 관리는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분석된 비만에 대한 28편의 증례보고 대부분은 치료 중재의 효과를 다룬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사례를 보고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만환자의 절식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황달에 대한 증례보고와 같은 것은 임상의들에게 충분히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만한 증례라고 판단된다[27].

종양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논문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종양에 대한 증례는 58건으로, 2000년 이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전체의 64%의 문헌이 출판되었을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의학을 이용한 암환자들의 관리 및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로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표준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치료 증례이며, 그 외 종양퇴축에 대한 증례들도 보고되었다. 실제로 최근 한의계의 암 치료 방향은 대부분 통합암치료를 통해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과 같은 표준치료의 부작용을 개선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과 관련 증례에서는 특징적인 것은 난임 관련 치료증례였다(n=5). 환자들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배란장애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의약 중재를 통해 자연임신에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외에 출산과정에서 한의약 중재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장[28]의 연구에서는 쌍태아 임신에서 임신 28주에 제대혈행장애로 일측 태아 사망 후에 4주간 팔물탕을 투여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태아의 임신기간을 연장시켜 임신 36주에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고, 산모에게는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제대 혈행장애에 대한 별다른 양방적 처치 없이 경과 관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약치료로 건강한 분만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김[29]의 연구에서는 여신단 제대 첩부를 활용하여 만출력 이상에 의한 난산을 해소한 증례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산과영역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한의약 중재의 유효성을 보여준 사례로 그 의의가 있겠다. 또 다른 연구는[30] 자궁경부무력으로 인해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권고받았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한의치료를 원한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한 증례가 있었다. 그 결과 40주까지 임신유지가 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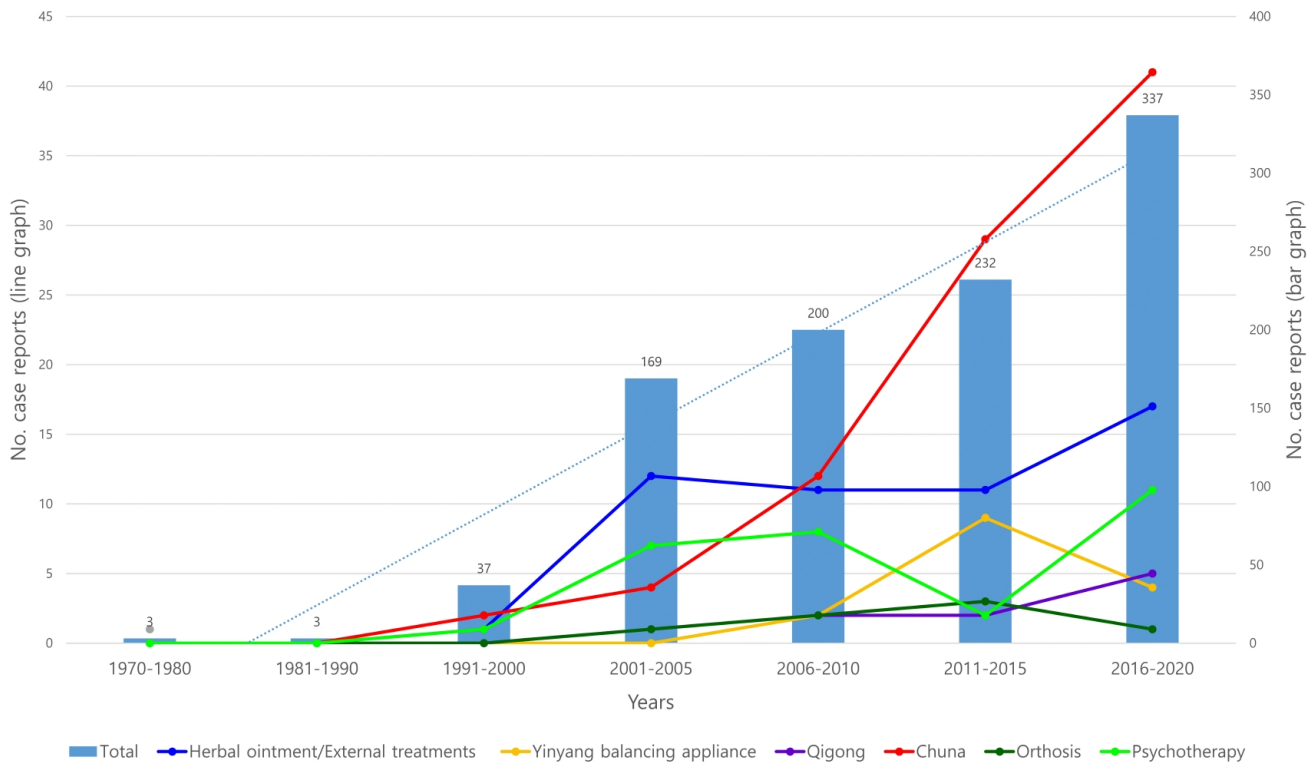

Fig. 4. The number of studies in which other than acupuncture-related and herbal medicine interventions were used.
The bar graph (right y-axis) refers to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in which treatment interventions other than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are used,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treatment intervention.

며 정상분만 하였다. 이는 한약치료를 통해 과거에 조산을 경험한 환자에서 수술적 처치 없이 성공적인 임신유지에 기여한 증례로 의미가 있겠다.

소아과 관련 증례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질환을 다루었다. 즉, 아스퍼거 증후군, 헌터증후군, WPW 증후군, 신체화장애,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증, 마비사시, Krabbe병 등 대부분 한의 소아임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으로, 한의 임상에서 희귀하고 이전에 드물게 보고된 상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한편, 특정 질병 상태의 환자에 대한 치료 외에 진단이나 질병 그 자체에 대한 보고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진단에 대한 보고는 4편이 있었는데 그 중 박[31]의 연구는 두통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증례를 보고하면서, 환자 5명의 발생 시 증상, 위험 인자, CT 소견 등을 정리하였다. 본 문헌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두통 환자 진단, 치료 방향 결정, 협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여 실제 임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진료 시 임상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치료중재의 특징: 치료중재와 관련하여 분석된 논문들은 치료중재로 인한 유의미한 결과의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른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 한의학 치료를 시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사례를 보고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의 한의학 치료중재는 일상적인 한의치료중재(침, 뜸, 부항, 한약으로 대표되는 복합적인 치료중재를 함께 사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치료중재 단독 치료, 혹은 흔하지 않지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질환 중심이 아니라 치료중재 중심으로, 특정한 하나의 한약을 통해 다양한 질환, 서로 다른 병증에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한론 처방이나 형상의학 기반의 치료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M-test와 같은 새로운 진단방법에 기반 한 침 치료를 시도한 것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증례는 한의치료중재 자체의 이상반응에 대한 증례, 혹은 양방치료중재나 다른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을 한방치료중재로 호전시킨 증례로 나뉘며, 치료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한 증례보다는 매우 적은 수가 보고되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총 940건의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증례가 치료중재의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증례보고, 혹은 질환 자체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한의약 치료가 흔히 적용되지 않는 질환 및 증상에 대한 한의치료 증례보고가 많았다. 질환의 종류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룬 증례가 가장 많았고 순환신경내과 질환, 부인과 질환, 종양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치료중재로는 전통적인 한의치료중재인 침, 뜸, 부항, 한약 외에도 약침, 추나, 침도요법, 한방 외용제나 외치법, 한방정신치료요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중재들에 대해 보고되었다. 시기별로 약침, 추나, 도침과 같이 증가 경향이 있는 치료중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증례보고의 증가추세선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의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약 50%의 증례보고에서는 2개 이상의 한의 치료중재가 사용되었으며, 양방치료와 병용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 대한 몇몇 리뷰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주로 증례연구 보고의 질을 평가하거나[13-15], 특정 질환, 혹은 특정 치료중재의 사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32,33]. 기존의 증례연구를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서 다룬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증례보고가 한의학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 증례보고의 주제나 특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요인을 관찰할수 있었다. 첫째, 증례보고를 출판 가능한 학술지의 유무와 해당 학술지의 특성이 증례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상의학과 관련된 증례는 2000년대부터 검색이 되었는데, 이는 1999년에 대한형상학회지의 논문이 발간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hyungsang.or.kr). 또한 상한론 기반의 처방을 활용한 증례는 20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한론과 관련된 학술지(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 kmediacs.com)가 2009년에 창간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 외에도 증례보고 섹션을 정규 컨텐츠로 제시하거나 증례보고만을 모아 출판하는 학술지(대한내과학회지)의 존재 여부는 해당 분야의 증례보고 연구를 독려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증례보고 주제와 관련된 트렌드의 변화는 임상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10년 구간에 사암침법, 동씨침법, 체질침, 분구침법 등 다양한 종류의 침법들을 적용한 증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정컨대 한의원 내원 환자의 침 치료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상의들이 다양한 침 치료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학술적 형식을 갖춰 그 결과를 교류하고자 한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의료기술로 진입 가능한 치료중재의 발굴과 평가, 그리고 국가보험제도 편입과 관련된 의료 정책적 상황 또한 특정 치료중재의 증례보고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한의치료중재는 기존기술로 평가되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다[34]. 임상근거를 구축하는 것은 신의료기술 등재에 필수적이다. 증례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거나 급격히 증가한 몇몇 치료중재는 결국 신의료기술으로 진입(한방정신요법-감정자유기법) 및 보험제도 내의 편입 논의[2014년 전기식온구기를 이용한 뜸 치료술의 간접구(기기구술) 포함 기술 인정, 2019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록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된 것이지만,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증례보고는 각 시대에서 요구하는 목적이나 역할에 따라 출판 규모의 변화가 있어왔으며[35], 당시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에 따라 진화하여 왔다[6]. 최근 서사 기반 의학(narrative-based medicine)이나 환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같은 변화는 점점 증례연구를 주목하는 흐름을 이끌게 되었다. 의학연구에서의 증례보고에 대한 위치는 증례보고의 의학적 기여와도 연계되어 있다. 증례보고의 의학적 기여는 1) 새로운 질병의 인식과 기술; 2) 이미 알려진 질환에 대한 드문 징후의 인식; 3) 질병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 4) 약물이나 치료법의 이상반응이나 유익한 부작용의 발견; 5) 의학 교육과 점검으로 설명하기도 한다[36]. 이는 몇몇 연구에서 제안한[3,6,17-19]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례'에 대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의학 증례보고의 경우, 위의 기준보다 좀 더 치료중재 그 자체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질병'이나 '이미 알려진 질환의 드문 징후'에 대한 인식이나 발견 이라기보다는 '한의학적 치료가 드문' 질병이나 징후에 대한 한의학 치료의 적용이 한의 증례보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였다. '한의학적 치료가 드문 질병/징후'인지 여부는 증례를 보고한 임상의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많은 논문에서 해당 증례 보고의 동기나 목적이 "다른 치료(주로 양방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에 큰 변화가 없거나, 불만족스러워 내원한 환자의 치료"임을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이 있었다. 한의학의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대체재(sub-

stitute goods)로서의 역할이 결국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룬 주제의 성향을 이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의임상에서 주로 볼 수 없는 질환이나 증후에 대한 보고가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증례보고가 주로 특별한 사례에 우호적이라는 사전지식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증례보고를 주로 작성하는 한의사나 연구자들이 주로 병원급에 근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또한 추후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의계의 의료제도적 제약도 한의학 증례보고 주제의 특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증례보고에 적합한 증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질병과정 자체가 드문 것', '희귀성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징후나 합병증의 증상' 및 '환자를 돌보는 참신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한 '독자의 흥미와 교육적 가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 관련 의료도구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6]. 그러나 일선의 한의사들은 질병과정이나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고할만한 도구, 특히 진단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사용에 법적인 자유가 일부 제한되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발달된 기술의 여파로 인해 증례보고 출판에 임상 관련 이미지와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6], 양방 의사와의 협업, 혹은 병원급의 의료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한의학 증례논문을 전수 조사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의계에 발표된 모든 증례논문을 수집,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의학 분야에 특화된 한 개의 검색엔진만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검색엔진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분석에 사용할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이 다소 정제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의 1,000편에 육박하는 증례보고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누락된 증례보고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색된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례보고만을 보고하는 특별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거나, 증례보고 연구를 특히 많이 출판하는 학술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증례보고에 대한 상세한 검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수기 검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질환의 분류 기준이나 치료중재의 분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우리는 증례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특성을 질병을 가진 환자(patients)와 이들에게 제공된 치료중재(intervention)를 바탕으로 양적 분석을 한 후, 그 안에서 중요한 함의를 정성적 방법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증례보고에서 다뤄지는 질병이나 증후, 치료중재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임의로 구분하고 분류,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질환 분류의 경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의 근거중심한의약 DB의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침구과와 재활의학과로 배정할 때 저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 연구자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향후에는 좀 더 명료한 기준을 통해 증례보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류기준의 모호함뿐 만 아니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한의학과 양의학의 협진과 관련해서 명료하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가능한 한 기술된 내용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학계에서 합의된 뚜렷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증례보고의 출판이 활성화되는 것은 한의학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의들의 연구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의학연구방법론 틀에 갇혀 드러낼 수 없는 한의학만의 고유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증례보고 연구를 통해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서 나의 진료를 발전시키고, 한의학 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결 론

다양한 증상과 질병에 대해 한의치료중재를 적용한 한의학 증례보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례보고는 의학의 기본적인 요구, 참신함을 감지하여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는 강점이 있다. 현재의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는 아직까지 이러한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증례를 보고하는 것이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환자 사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한의 증례보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None.

Funding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의료기술의 임상근거 강화」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KSN2013210).

Data availability

The authors can provide upon reasonable request.

Conflicts of interest

저자들은 아무런 이해 상충이 없음을 밝힌다.

References

1. Kim SY, Kim SW, Lee H, Park HJ. Conducting and reporting case series and audits - author guidelines. Korean J Acupunct. 2007 ; 24(4) : 13-24.
2. Claudia MW, Klaus L. Clinical research in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Korea: Elsevier Korea. 2013 : 1-240.
3. Cohen H. How to write a patient case report. Am J Health Syst Pharm. 2006 ; 63(19) : 1888-92. https://doi.org/10.2146/ajhp060182
4. Agha R, Rosin RD. Time for a new approach to case reports. Int J Surg Case Rep. 2010 ; 1(1) : 1-3. https://doi.org/10.1016/j.ijscr.2010.04.001
5. Jenicek M. Clinical case reporting in evidence-based medicine. 2002. Gyechuk. 1-276.
6. Packer CD, Berger GN, Mookherjee S. Writing case reports: a practical guide from conception through publication. 2017.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7.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2019) situation reports.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8. Kim N. The need and meaning of studying medical records in the Korean medical histo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5 ; 18(2) : 189-95.
9. Ahn SY, Han CH, Kwon OM, Park SY, Ahn, SW. A study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 countermeasures of Influenza A by case histories. J Korean Med Classics. 2009 ; 22(4) : 221-39.
10. Ku M, Cha WS, Kim N. A study on the educational utilization of Eui'an - the possibility of combination between PBL (Problem Based Learning) and Eui'an -.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8 ; 31(2) : 83-90.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83
11. Richason TP, Paulson SM, Lowenstein SR, Heard KJ. Case reports describing treatments in the emergency medicine literature: missing and misleading information. BMC Emerg Med. 2009 ; 9 : 10. https://doi.org/10.1186/1471-227x-9-10
12. Riley DS, Barber MS, Kienle GS, Aronson JK, Schoen-Angerer T, Tugwell P, et al. CARE guidelines for case report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document. J Clin Epidemiol. 2017 ; 89 : 218-35. https://doi.org/10.1016/j.jclinepi.2017.04.026
13. Lee HS, Lee J, Han JH, Chae H.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case reports i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using CARES guideline.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9 ; 30(2) : 59-69. https://doi.org/10.7231/jon.2019.30.2.059
14. Park KM, Choi SY, Lee JA, Song YK.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case reports of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from 2013 to 2018 according to the CARE (CAse REport) guidelines. J Korean Med Obes Res. 2018 ; 18(2) : 144-51. https://doi.org/10.15429/jkomor.2018.18.2.144
15. Lee S, Kim SH, Han SY, Lee Y, Lee J, Bae N, et al.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reporting CAse Report for Sasang medicine (CARES). J Sasang Constitut Med. 2018 ; 30(3) : 74-94. https://doi.org/10.7730/JSCM.2018.30.3.74
16. Park JH, Lee S, Kim TH, Kim S, Lee JH. Current status of case reports and case series reported by Korean Medicine doctors in primary clinics: A systematic review. Integr Med Res. 2020 ; 9(4) : 100417. https://doi.org/10.1016/j.imr.2020.100417
17. Strokes V, Fertleman C. Writing a case report in 10 steps. BMJ. 2015 ; 350 : h2693. doi: https://doi.org/10.1136/bmj.h2693
18. Tamboli PP. How to write a scientific article – Part VI – writing case report. J Intgr Stand Homeopathy 2020 ; 3(1) : 8-12. https://doi.org/10.25259/JISH_8_2020
19. Juyal D, Thaledi S, Thawani V. Writing patient case reports for publication. Educ Health. 2013 ; 26 : 126-9. https://doi.org/10.4103/1357-6283.120707
20. Hong SH. Clinical report and study on alcoholic liver disease. J Acupunct Res. 1999 ; 16(3) : 15-24.
21. Kim SH, Hong SH, Park DI. A case of adverse effects during

Interferon plus Ribavirin treatments for chronic hepatitis C. J Acupunct Res. 2003 ; 20(1) : 244-53.
22. Kim YH, Kim YI, Lee H. The clinical study on 6 cases of patients with side effect caused by acupuncture therapy. Journal of Haehwa Medicine. 2006 ; 15(1) : 47-52.
23. Choi JY, Nam SS, Kim YS, Lee JD. A study of eight cases according to Hyeongsang diagnosis applying Sa-am acupuncture therapy. J Acupunct Res. 2012 ; 29(1) : 139-50.
24. Lim HS, Kim JB. A Case Report on the CVA Patient with the sense disorder of equilibrium.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03 ; 17(5) : 1339-42.
25. Lee DJ, Kwon K, Seo HS. A case of epidermal cyst using surgical method after Bufonis Venenum pharmacopuncture anesthesia.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7 ; 30(2) : 165-9.
26. Kim TY, Han C, Lee JK, Park JH, Geum CJ, Oh JW, et al. A case report on ankle pain induced with Charcot Marie Tooth disease treated b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with Chuna manu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2015 ; 10(1) : 87-95.
27. Jeong WS, Park HG, Chio HJ, Kim SU. A case report on the jaundice occurred during the modified fasting therapy period : the Gilbert's syndrome. J Korean Med Obes Res. 2011 ; 11(2) : 69-74.
28. Zhang KH, Song HS, Lee DK, Kim BN, Kim SW. A case report of normal delivery using herbmed of twin pregnancy with one fetal death intrauterine. J Korean Obstet Gynecol. 2004 ; 17(1) : 187-93.
29. Kim SJ, Choi DK, Yoo SH, Kim YS, Shon YJ, Sohn NW. Effects of Yeosin-dan on dystocia caused by abnormal expulsive forces in Primipara. J Korean Obstet Gynecol. 2005 ; 18(4) : 219-29.
30. Shim HJ, Ji EH. 1 Case of full-term delivery of cervical incompetence patient treated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 Korean Obstet Gynecol. 2019 ; 32(3) : 263-72. http://doi.org/10.15204/jkobgy.2019.32.3.263
31. Park SJ, Gwak SR, Joo JC, Kwon YM. Case series of headache patients diagnosed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by computed tomography in a Korean medicine hospital. J Int Korean Med. 2018 ; 39(4) : 764-71. https://doi.org/10.22246/jikm.2018.39.4.764
32. Han G, Shin H, Seong S, Kim S. Systematic review of case reports about Korean medicine for lung cancer. J Korean Med. 2018 ; 39(4) : 136-57. https://doi.org/10.13048/jkm.18041
33. Lee IS, Kang KS, Kim SY. Panax ginseng pharmacopunctur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Biomolecules. 2019 ; 10(1) : 33. https://doi.org/10.3390/biom10010033
34. Park M, Jung Y, Son SK, Kwon S, Kim N, Kim, JW, et al.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Korean medicine field. J Korean Med. 2019 ; 40(3) : 59-75. https://doi:10.13048/jkm.19027
35. Nissen T, Wynn R. The recent history of the clinical case report: a narrative review. JRSM Short Rep. 2012 ; 3(12) : 87. https://doi.org/10.1258/shorts.2012.012046
36. Vandenbroucke JP. In defense of case reports and case series. Ann Intern Med. 2001 ; 134(4) : 330-4. https://doi.org/10.7326/0003-4819-134-4-200102200-00017